

성인의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

-대도시(서울, 대구, 경상도, 기타 지역)를 중심으로-

신은경(호산대학교, 조교수)*

현영섭(경북대학교, 부교수)‡

요약

성인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평생교육학의 중요 연구 주제였다. 최근까지도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념, 측정,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방법이나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학습 상황을 벗어나서 또는 사회적 상황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조사 및 지필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집한 93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득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별,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의해서도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이상, 평생교육 참여여부의 경우 참여한 경우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인, 소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성인교육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였다(현영섭, 2014a).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고되어 왔다(공민영, 김진모, 2008; 김지자, 정지용, 1994; 유귀옥, 1997; 조대연, 2005; McCune, Guglielmino, &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신은경(712-718,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105길 19 호산대학교, sek-1178@daum.net)

‡ 교신저자: 현영섭(702-701,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yshyun@knu.ac.kr)

Garcia, 1990). 특히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념이나 구성요소 그리고 관련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연구의 축적이 확대되면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특성과 평생교육에서의 역할에 대한 다각적 이해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개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는 연구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진행되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는 평생학습 참여의 차이와 연관되는 중요성이 있는 주제이다. 또한 그 개인차를 이해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차별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이윤옥, 2006; 진영은, 이진옥, 2007; 한상훈, 2003; 현영섭, 2014a; Garrison, 1997).

그러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국내 연구들 중 다수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가 학습 방법과 유형에 있다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 성찰일지 적용, 실습교육평가방법, 학습유형, 팀 기반 학습 등 학습방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김근곤 외, 2008; 김설희, 김동기, 2009; 김영희, 이영미, 2012; 박인숙, 김동기, 2010; 박지원, 방경숙, 2010; 송수지, 2012; 양선희 외, 2012; 엄미란 외, 2010; 유명란, 최운정, 강명숙, 2009; 한승희, 2008).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학습 방법이나 유형은 이미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사회적·심리적 환경과 활동의 결과물로서(양문영, 2008; 조대연, 2005; Candy, 1991)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의 원인으로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중요성을 초기의 연구들(김지자, 정지웅, 1994; 배을규, 이민영, 2010; 유귀옥, 1997; 한상훈, 2003)에서도 보고되어 왔다. 특히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도구의 개발과 타당성의 검증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도구 개발이나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 소득 등의 변수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거나 소득만의 영향력을 따로 분석하는 등의 상세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소득이나 연령과 같이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점에서 평생교육 참여 차이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이나 유형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연

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과 관련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평생교육분야의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성인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이 15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단편적인 조사 결과이지만, 소득이 교육기회 불평등 및 평생학습 참여의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김한별, 2014; 한승희, 2004; 현영섭, 2014b)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불평등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서 평생학습 참여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실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등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시간이 부족한 것 역시 직업생활이나 수입을 얻기 위한 시간 할애 그리고 이로 인한 피로와 연관된다. 즉, 평생학습 참여의 의지나 주도성을 제약하는 요소 중에 소득이나 이와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김지자, 정지웅, 1994; 유귀옥, 1997; 한지영, 2008; Guglielmino & Guglielmino, 2006; Stockdale & Brockett, 2011). 따라서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에 따른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참여 격차를 이해하고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성인의 소득에 따른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인차를 분석하여 평생학습의 참여 격차를 소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연구 축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성인의 소득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념

가. 소득의 개념

광범위한 개념에서 소득은 일정한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벌이를 의미한다. 국립어학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소득을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물질적 이익”, “일정 기간 동안

의 근로 사업이나 자산의 운영 따위에서 얻는 수입, 봉급, 노임, 지대(地代), 이자 따위”로 정의하고 있다(국립어학원, 2015). 즉, 일을 하거나 육체노동과 같은 근로가 아니더라도 자산이나 자본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을 위한 일정한 활동은 경제적 활동 또는 경제적 상황에서 노동력,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투입활동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소득은 경제적 상황을 가정할 경우,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용한 재화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찬, 2010).

이런 소득은 소득의 주체, 소득을 얻는 활동의 유형, 소득을 얻게 하는 자본의 유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종류가 구분되기도 한다. 소득의 주체에 의해서는 개인소득, 국가소득, 가계소득 등이 있으며, 소득을 얻는 활동의 유형이나 자본의 유형에 따라서는 금융소득, 불로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노후소득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노동이나 기타 금융 활동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복지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전적 보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인 기본소득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을 법적으로 정하기도 한다(이명현, 2014; 최광은, 2011).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은 기간이 월, 분기, 연 단위로 환산된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거나 이자,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 그리고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등을 합쳐서 월, 분기, 연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김교성, 2003; 장지연, 2012). 이렇게 계산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된다. 즉, 개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다. 가구원별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한다면 한 가구가 특정 기간 동안 획득한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가구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가구원의 개인 소득이 개인의 행동이나 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한국은 가족단위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가구소득이 가구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소득단위가 되기도 한다(장지연, 2012). 이에 다수의 연구들에서 소득을 가구가 얻은 월평균 총소득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의 기본 단위가 가구 구성원과 같은 개인이건 가구와 같은 공동체인건, 소득 측정 단위는 화폐단위와 동일하다. 즉, 한국은 원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단위를 소득의 측정단위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소득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Houle(1961), Tough(1970), Knowles(1975) 등에 의해 발전되어

은 개념이다(현영섭, 2014a). 일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학습을 인식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Knowles, 1975).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경향이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 및 능력을 밝히는 시도들이다(배영주, 2003). 즉, 자기주도학습의 실천과 성공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기주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유귀옥, 1997; 조대연, 2005; Guglielmino, 1977; Merriam et al., 2009)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어져 왔다.

먼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self-direction in learning)을 개인의 인성적 또는 정의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를 시도한 경우이다(강성호, 2013; 현영섭, 2010; Guglielmino, 1977; Oddi, 1986; Stockdale & Brockett, 2011). 예를 들어, Guglielmino(1977)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8가지 능력을 제시하였다. 학습 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 창의성, 미래지향성, 연구 활용 능력과 문제해결기능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면서 Guglielmino(1977)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태도, 가치관, 능력 등과 같은 인성적 특성으로 설명하였고, 학습자가 처한 학습 상황에 따라 발휘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Guglielmino의 주장을 계승한 West와 Bentley(1990)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6개의 구성요인, 즉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Oddi(1986)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으로 보고 3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즉, 학습에 대한 몰입과 학습에 대한 냉담, 인지적 개방성과 폐쇄성, 적극적 동인과 소극적 동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차원은 양극을 가진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나 통제 능력, 태도, 의지, 가치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조대연, 2005).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국내외 연구자들도 개별 학습자의 개인적 또는 심리적 특성이자 성향으로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강조하였다(강성호, 2013, Stockdale & Brockett, 2011).

다음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개인의 인성적 특성과 학습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는 통합적 관점이다(공민영, 김진모, 2008; 오원옥, 2002; 유귀옥, 1997; Brockett & Hiemstra, 1991, Candy, 1991). 예를 들어, Brockett와 Hiemstra(1991)는 책임성향이라는 개념으로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과정과 인성적 측면을 연계하여 자기주도성을 설명하였다. 즉,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학습을 계획·실행·평가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에서 책임감

을 갖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 요인과 스스로 선택한 배움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하는 욕구, 기호, 의지 등과 같은 내적 요인 또는 인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Candy(1991)는 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이해하며, 교수학습방법과의 관련성도 강조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귀옥(1997)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내재된 자기주도성과 학습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내재된 개인적 특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민영과 김진모(2008)에 의하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통제와 책임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의 학습욕구 및 학습몰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주도학습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보유한 특성으로서 적절한 환경 속에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조대연, 2005).

이와 같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수준의 의지, 태도, 습관, 성향, 기호, 욕구,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학습 상황 및 환경에 따라 형성·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 관점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내재된 가치관, 의지, 태도 등의 인성적 특성으로서 일련의 학습과정의 환경적·상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

성인학습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자발적·능동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귀옥, 1997; Brockett & Hiemstra, 1991). 성인들은 성숙함에 따라 자신의 결정과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자기주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일련의 학습과정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Knowles, Holton & Swanson, 2010). 즉,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한 개인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능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김한별, 2014). 한 개인이 성숙함에 따라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체적·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부족했다면 개인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발휘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또 개인들이 처한 학습 환경이나 과정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형성

되거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재는 소득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개인에 따른 소득 수준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일련의 학습과정에서 학습 참여를 결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참여 도중에도 학습을 지속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영상, 2009; 최돈민, 이세정, 김세화, 2008). 소득격차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 평생교육의 참여, 평생학습 등에서의 불평등 또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현영섭, 2012; 현영섭, 2014b). 예를 들어, 2014 평생학습 실태조사(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참여율에서 격차가 존재하였다. 즉, 가구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50.1%)과 150만원 미만(21.1%)의 참여율에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평생학습 중에서 비형식교육은 월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은 18.7%, 500만원 이상 집단은 48.2%로 차이가 더 커져 약 2.6배에 이른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처럼 평생학습 참여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불평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불균등을 의미하고, 이는 또 다른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소득격차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Guglielmino와 Guglielmino(2006)의 연구에서는 5개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과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아졌다. 이는 국가 수준의 연구였지만 소득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Guglielmino, Kaltt 그리고 Guglielmino(1995)의 연구에서도 1인당 소득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Guglielmino & Guglielmino, 2006).

국내 연구에서도 유귀옥과 정지웅(1998)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즉,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과 월 소득 300만 원대 및 400만원 이상 집단 사이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 < .05$).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양문영(2008)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 < .001$). 즉,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 집단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평균(3.69)이 200만원 미만 집단의 평균(3.42)보다 높았다. 이런 결과에서 볼 때, 소득의 차이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개인행동을 제약하거나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현영섭, 2014a).

따라서 학습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요인에 의하여 학습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격차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본과 평생학습 정보 수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현영섭(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본이 평생학습 정보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정보수준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생성·확산하는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현영섭, 2012)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연관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는 소득수준에 의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특성 역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박상옥, 2015; 황보혜, 최은수, 2009), 연령이 높을수록(이정희, 윤명희, 유소정, 2007; 유귀옥, 정지웅, 1998), 학력이 높을수록(양남영, 문선영, 2007; 유귀옥, 정지웅, 1998; McCune, Guglielmino & Garcia, 1990),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안미애, 2007; 황보혜, 최은수, 2009)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정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을 비롯한 개인특성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개인특성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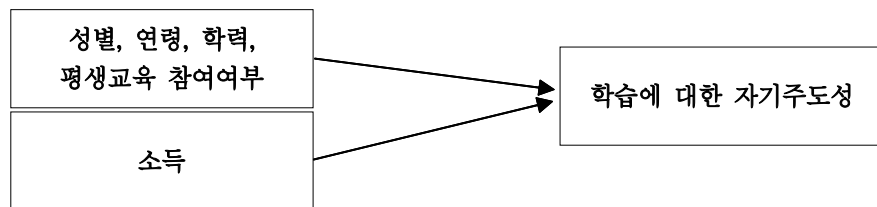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설정

본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성인의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즉, 소득을 독립변수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로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런 변수로 성별(박상옥, 2015; 황보혜, 최은수, 2009), 연령(이정희, 윤명희, 유소정, 2007; 유귀옥, 정지웅, 1998), 학력(양남영, 문선영, 2007; 유귀옥, 정지웅, 1998; McCune, Guglielmino & Garcia, 1990), 평생교육 참여여부(안미애, 2007; 황보혜, 최은수, 2009) 등이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런 변수들을 회귀분석에서 소득보다 먼저 투입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후, 소득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가 성인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한 상태에서 분석될 수 있고,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회귀계수가 과대추정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김두섭, 강남준, 2000).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이 스스로 필요한 학습을 인식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나 학습 상황 등과 호응하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소득은 성인이 소속된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월 소득으로 정의하였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다. 성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남녀의 구분을 의미하고,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학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력 구분 기준인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의 4개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현재까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자의 표집 및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연표집방법 및 네트워크 조사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도구는 Google 설문응답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메일이나 SNS(Social Network System)를 통해 설문조사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메일과 SNS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SNS를 통해 조사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오프라인 방식의 지필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지필설문조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주변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하

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1,123명이었다. 이중 지필설문조사는 2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7명(91.5%)이 응답하였고,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876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1개의 문항이라도 무응답을 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153부), 이상치(outlier)가 있는 설문지(38부)를 제거하여, 총 932부의 설문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응답자의 개인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249명(26.7%), 여자 683명(73.3%)이었다. 연령에서는 30대가 343명(36.8%), 40대가 33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9.19세였다. 학력에서는 대졸이 388명(41.6%), 대학원이상 285명(30.6%)으로 설문응답자의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108명(11.6%), 부산 9명(1.0%), 대구 559명(60.0%), 인천 6명(0.6%), 광주 1명(0.1%), 대전 11명(1.2%), 울산 9명(1.0%), 충청도 10명(1.1%), 전라도 8명(0.9%), 경기도 69명(7.4%), 강원도 4명(0.4%), 경상도 130명(13.9%), 제주 8명(0.9%)이었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43명(47.5%), 없는 경우가 489명(52.5%)이었다. 월 가구소득에서는 150만원 미만이 42명(4.5%),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10명(22.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277명(29.7%), 500만원 이상이 403명(43.2%)이었다. 평균 월 가구소득은 462.38만원이었다.

<표 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49	26.7	평생교육 참여여부	있다	443	47.5
	여자	683	73.3		없다	489	52.5
연령	20대	137	14.7	소득	150만원 미만	42	4.5
	30대	343	36.8		150~300만원 미만	210	22.5
	40대	335	35.9		300~500만원 미만	277	29.7
	60대 이상	13	1.4		500만원 이상	403	43.2
	평균 39.19세				평균 462.38만원		
학력	고졸이하	122	13.1	거주 지역	서울	108	11.6
	전문대졸	137	14.7		대구	559	60.0
	대졸	388	41.6		경상도	130	13.9
	대학원이상	285	30.6		기타	135	14.5

3. 조사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변수(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평생교육 참여여부, 소득) 관련 6개 문항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관련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관련 문항의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연령과 소득은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성별, 학력, 거주지역,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범주형 변수로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소득은 월 가구소득으로 자연대수치환법으로 자릿수를 축소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변수	문항번호	문항수
개인특성	I - 1(성별), 2(연령), 3(학력), 4(거주지역), 5(평생교육 참여여부), 6(소득)	6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II- 1~32	32
	계	38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West와 Bentley(1990)이 개발한 도구를 유귀옥(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West와 Bentley(1990)의 도구는 기존의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도구의 타당도의 문체(유귀옥, 1997; 현영섭, 2014a; West & Bentley, 1990)를 지적하고 개선된 도구였다. West와 Bentley(1990)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6개 요인의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제안하였다. 이를 유귀옥(1997)은 한국의 문화적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유귀옥의 도구는 다수의 연구들(신은정, 2009; 이정수, 박효선, 2011; 오원옥, 2002; 양문영, 2008)에서 타당도 검증이 수행되었다. 조사문항에는 ‘나는 새롭게 무언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배우겠다고 결심한 것이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10번 문항은 역산문항이었다. 유귀옥(1997)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측정문항의 Cronbach의 α 계수 평균은 .73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 계수 평균이 .846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및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earson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성별을 보면, 남녀로 구성되었고, 연령의 경우 평균은 39.19세로 약 40세 정도였다. 연령의 최소값은 20세, 최대값은 67세였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평균은 2,586이었고,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평균은 112.488(문항별 평균 3.52)이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최소값은 79.00이었고, 최대값은 142.00이었다.

연령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왜도와 첨도 값은 ± 2 이내로 허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별,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1	2	3	4	5	6
성별(1)	.	.	1.00	2.00	-1.054	-.891	1.00					
연령(2)	39.194	8.828	20.00	67.00	.278	-.410	.081*	1.00				
학력(3)	.	.	1.00	4.00	-.655	-.483	-.013	.043	1.00			
평생교육 참여여부(4)	.	.	1.00	2.00	.099	-1.994	.167**	.172**	.234**	1.00		
소득(5)	2,586	.268	1.47	3.60	-.357	.860	.030	.310**	.219**	.127**	1.00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6)	112.488	10.993	79.00	142.00	.080	-.359	-.048	.020	.398**	.237**	.163**	1.00

*: $p < .05$, **: $p < .01$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일차적인 관심 사항인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163$, $p < .01$). 정적 상관계수로서 소득이 증가하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63이기 때문에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상관이 낮은 수준이었다.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학력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으로 .398이었고, 그 다음은 연령과 소득으로 .310이었다. 그리고 학력과 평생교육 참여여부(.234), 연령과 평생교육 참여여부

부(.172)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범주형 변수라는 점에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의 분석과 해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2.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결과

소득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성별과 평생교육 참여여부는 이변량 분포이기 때문에 가변수로 추가 변환하지 않고 분석에 투입하였다. 성별, 학력(d대졸, d대학원이상), 평생교육 참여여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표 4>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한계	VIF
상수	96.125	3.276		29.346	.000		
성별	-1.476	.744	-.059	-1.985	.047	.960	1.042
연령	-.664	.374	-.056	-1.776	.076	.874	1.144
학력	d전문대졸	.008	1.230	.000	.007	.995	.548
	d대졸	5.016	1.038	.225	4.831	.000	.397
	d대학원이상	10.378	1.109	.435	9.354	.000	.398
평생교육 참여여부	3.535	.683	.161	5.174	.000	.892	1.120
소득	3.330	1.294	.081	2.572	.010	.866	1.155

$R^2=.204(aR^2=.198)$, $F=33.925$, $p=.000$

주) d전문대졸, d대졸, d대학원이상 은 학력의 가변수임.

성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1.476($t=-1.985$, $p=.047$)이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평생교육 참여여부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3.535($t=5.174$, $p=.000$)이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3개의 가변수로 나뉘서 분석에 투입되었다. d전문대졸($t=.007$, $p=.995$)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d대졸의 회귀계수는 5.016($t=4.831$,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d대학원 이상의 경우도 회귀계수는 10.378($t=9.354$,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력에서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에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대졸이 고졸이하나 전문대졸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았다.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도 대졸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개인특성변수의 영향을 먼저 고려한 상황에서 소득의 회귀계수 역시 3.33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72$, $p=.010$). 이때 회귀방정식의 설명량은 20.4%였다($F=33.925$, $p<.05$). 수정된 설명량은 19.8%였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3.330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은 학력의 가변수인 d대학원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 참여여부, d대졸, 소득의 순이었다.

3. 논의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의 영향이 고려된 상태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내외 연구들(양문영, 2008; 유귀옥, 정지웅, 1998; Guglielmino & Guglielmino, 2006)도 시사하였던 점이었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고 생활수준이 안정적일수록 삶의 질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현영섭, 2012; Guglielmino & Guglielmino, 2006). 다만 선행연구들은 국가단위의 연구이거나 교사 등 특수 계층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별성은 존재하였다.

해석의 방향을 반대로 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추가적인 학습이나 평생학습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 자발성, 주도성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 소득이 낮은 경우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사용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는 학습에 참여하려는 주도성을 사전에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일과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고, 그만큼 여유시간에 단순한 휴식이나 가사일을 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한다. 이런 한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학습 등의 장기적 투자보다는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데 더 집중하게 된다(Stiglitz, 2012). 소득이 낮은 경우 학습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이

득을 보기 보다는 바로 취업하여 벌이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성별,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가 자기주도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박상옥(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였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남성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직장을 통해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의 차이, 학습경험에 따른 자기주도성 발달의 차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력의 경우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관련된 연구들(DesJarnins, 2003; Egerton, 2002)에서도 기존의 학력이 평생학습 참여나 참여의도 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의미에서의 학교교육에 참여한 기간이 길고 높은 학력일수록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학습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현영섭, 2012).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졸과 전문대졸에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없었으나 대졸과 대학원이상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교육이수연한의 차이도 있겠으나,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입시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장기간에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하고 기본적인 인문 및 교양 영역에 대한 학습, 연구 활동의 참여, 동아리 형태의 학습 진행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기회에 노출되는 데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김근곤 외, 2008).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참여여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안미애(2007), 황보혜와 최은수(200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았다. 때로는 선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앞의 학력과 유사하게 이전의 학습 경험은 학습의 가치나 이후에 학습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평생교육 참여여부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른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형성되기 쉬우며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이런 마음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연구가 평생교육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개념과 효과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학습 방법과 유형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거나 대학생 등 성인 1기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가 소득에 의해서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평생교육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소득에 의해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소득 등의 사회적 변수들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된 소득과 개인특성(성별,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수준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낮아지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주도적 참여 의지나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별,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 등의 변수의 영향력을 먼저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보수적 접근으로 소득을 먼저 회귀방정식에 투입하거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더 큰 회귀계수가 산출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최소화하여 분석하여도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소득을 고려한 연구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평생교육이 다양한 연령층의 경력전환이나 삶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권대봉 외, 2010; 최운실, 2005; 현영섭, 2014b)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소득에 의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정책적 접근에서의 시사점도 제공한다. 즉, 소득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나 주도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는 수입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경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이들의 소득과 관련된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은 평생학습 참여보다는 매일매일의 생계에 몰입해야 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주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황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생학습은 학습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학습형 일자리 또는 학습을 활용한 일자리(김진화, 2015)와 함께 연동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하여 소득을 높이거나 얻을 수 있다면 저소득층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강화와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주도적 참여라는 점에서 더 한층 의미가 깊다(Guglielmino & Guglielmino, 2006; Stockdale & Brockett, 2011). 수동적이고 혜택을 받는데 익숙한 저소득층이 아니라 스스로 삶에 도전하고 또 의미를 찾는데 적극적인 계층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가 특수 계층이나 국가 수준이 아니라 일반 반적인 개인 수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교사 등의 특수 계층이나 직장인이나 성인 1기의 청년층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는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수준으로 개인 수준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나이가 중년층 이상이거나 상관없이, 개인 수준에서의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득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는 보다 다양한 집단과 전체 성인에게 적용되어 평생교육 참여 및 다양한 평생교육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력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서열형 척도로 측정되어 분석결과의 해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 결과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보유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보유자 보다 월등하게 높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수준을 보였다. 이런 점은 기존의 전통적 학교교육이 고등학력 이상일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학력과 소득의 관련성이 높은 학력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학력과 소득에 의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차이는 성인기 평생학습 참여의 수준의 격차를 급격하게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식교육의 참여를 통해 획득된 학력의 수준이 평생교육의 무형식과 비형식 학습에 참여하는데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DesJamins,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력과 평생학습 참여 사이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력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 사이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소득, 평생교육 참여여부도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평생학습 참여의 관계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적용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동일한 정보원천으로부터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변량(common method variance)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소득의 경우 주관식으로 설문문항을 통하여 묻는 것보다는 실질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또는 개인연구자의 설문조사 보다는 소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등을 대규모 또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각종 국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둘째, 네트워크조사 및 우연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성인 모집단에까지 적용하는 데에는 표집 상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한 표집이나 변수의 하위 범주별로 유사한 표본 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집하여 조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중 일부만을 활용하여 통제변수의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평생교육 참여여부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개인적 특성으로서 거주 지역 특성, 직업 등의 변수를 고려하는 것, 소득을 월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이나 개인지출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척도 자체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양한 개념 정의만큼이나 여러 학자들(Guglielmino, 1977; Oddi, 1986; Stockdale & Brockett, 2011; West & Bentley, 1990)에 의해서 개발·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Guglielmino(1977)의 SDLRS를 변안한 김지자 외(1996)의 한국형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도구(SDLRS-K-96)와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도구의 타당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한 West와 Bentley(1990)의 도구를 변안한 유귀옥(1997)의 측정도구가 다수 사용되고 있고(현영섭, 2014a)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도구는 변안 과정에서 기존의 도구와 다른 의미나 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한국 성인들의 정서나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개인적 특성과 개개인이 처한 학습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데 기존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3). 기업 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 **HRD연구** 15(2). 한국인력개발학회. 195-218.
- 고영상(2009).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2). 한국평생교육학회. 105-132.
- 공민영, 김진모(2008). 기업 e-Learning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자기주도성, 전이풍토, 학습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한국농업교육학회. 223-246.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립어학원(2015). 표준 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5. 10. 5 인출.
- 권대봉 외(2010). 평생학습도시의 사회경제적 의미. **HRD연구** 12(2). 한국인력개발학회. 19-44.
- 김교성(2003).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한국사회복지학** 55. 한국사회복지학회. 181-204.
- 김근곤 외(2008). 전공 간 협력 프로젝트 학습이 대학생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한국간호교육학회. 252-261.
- 김두섭, 강남준(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 김설희, 김동기(2009). 치위생 교육과정의 문제중심학습이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3(1). 대한간호학회. 82-89.
- 김영찬(2010). **왜 소득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서울: 황금고래.
- 김영희, 이영미(2012). 역할극 활용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평가방법에 대한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과정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 한국산학기술학회. 147-155.
- 김지자, 김경성, 유귀옥, 유길한(1996).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방안. **평생교육학연구** 2(1). 한국평생교육학회. 1-25.
- 김지자, 정지용(1994). 사회교육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이론의 발전과 실제적 적용. **사회교육연구** 19. 한국사회교육학회. 25-40.
- 김진화(2015). 평생학습의 경제적 현상과 평생학습형 일자리 분석의 탐색적 조망. 2015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37-244. 10월 17일. 제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김한별(2014).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박상욱(2015). 성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고등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G대학

- 교 사례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8(1). 한국성인교육학회. 77-102.
- 박인숙, 김동기(2010).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에 대한 치위생 교육과정의 팀기반학습이 학습동기와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치위생학회지* 10(1). 한국치위생학회. 127-140.
- 박지원, 방경숙(2010). 일개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 *간호학의 지평* 7(1).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36-42.
- 배영주(2003).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배을규, 이민영(2010). HRD기업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HRD연구* 12(3). 한국인력개발학회. 1-26.
- 송수지(2012). 성찰일지 적용 학습이 예비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53.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199-227.
- 신은정(2009).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배경요인 및 학습참여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안미애(200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연구-방송통신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양남영, 문선영(2007). 간호사의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4(4). 대한간호행정학회. 473-480.
- 양문영(2008). 학습은행제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양선희 외(2012).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기본간호학회지* 19(3). 기본간호학회. 334-342.
- 염미란, 김현숙, 김은경, 성가연(2010).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피하주사 간호수행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0(2). 한국간호과학회. 151-160.
- 오원옥(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한국간호과학회. 684-693.
- 유귀옥(1997).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귀옥, 정지웅(1998).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평생교육학연구* 4(1). 한국평생교육학회. 119-149.
- 유명란, 최운정, 강명숙(2009). 문제중심학습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6(1). 기본간호학회. 46-55.

- 이명현(201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이윤옥(2006). 자기주도학습 개념 분석 및 측정도구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아동교육** 16(1). 한국아동교육학회. 19-30.
- 이정수, 박효선(2011). 군의 학습조직과 자기주도학습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 연구** 6(1).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1-25.
- 이정희, 윤명희, 윤소정(2007). 성인학습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접근방식 차이. **Andragogy Today** 10(4). 한국성인교육학회. 125-149.
- 장지연(2012).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동향과 전망** 85.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31-163.
- 조대연(2005).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팀내 대인관계기술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23.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23-242.
- 진영은, 이진옥(2007).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한국교원교육학회. 221-249.
- 최광은(2011).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서울: 박종철출판사.
- 최돈민, 이세정, 김세화(2008).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한국평생교육학회. 29-55.
- 최운실(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24(3). 한국직업교육학회. 381-419.
- 한상훈(2003).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9(3). 한국평생교육학회. 225-245.
-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한승희(2008).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법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한국문헌정보학회. 81-101.
- 한지영(2008). 평생학습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SDLRS)의 타당성 연구. **공학교육연구** 11(4). 한국공학교육학회. 64-75.
- 현영섭(2010). 경력정체와 경력계획 간의 관계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 **HRD연구** 12(2). 한국인력개발학회. 45-65.
- 현영섭(2012). 성인의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평생학습 정보수준의 구조적 관계. **HRD연구** 14(2). 한국인력개발학회. 107-137.
- 현영섭(2014a). 성인 자기주도학습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메타 연구: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한국평생교육학회. 33-62.

- 현영섭(2014b). 평생학습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HRD연구** 16(1). 한국인력개발학회. 59-78.
- 항보혜, 최은수(2009).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5(4).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121-146.
- Brockett, R. H., & Hiemstra, R. (1991). *Self-direction in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andy, P. C.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DesJarnins, R. (2003). Determinants of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from a life-wide learning perspective in Canada. *Education Economics*, 11(1), 11-38.
- Egerton, M. (2002). Higher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4), 603-620.
- Garrison, R. D. (1997). Self-directed learning: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48(1), 18-33.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Guglielmino, P. J., & Guglielmino, L. M. (2006). Cultur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er capita income in five countries.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71(2), 21-28.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2010). 성인학습자: 성인교육과 HRD가 만나는 고전의 결정판[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6nd Ed)]. (최은수 역).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원전은 2005에 출판).
- McCune, S. K., Guglielmino, L. M. & Garcia, G. (1990). Adult self-direction in learning: A preliminary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research us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In Long, H. B. & Associates(eds.). *Adva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research*(145-156). Norman, OK: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
- Merriam, S. B., Caffarella, R. B., & Baumgartner, L. M. (2009). 성인학습론[*Learning in*

- Adulthood*(3rd Ed)]. (기영화, 홍성화, 조윤정, 김선주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전은 2007년에 출판).
- Oddi, L. F.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identify self-directed continuing learners. *Adult Education Quarterly*, 33(2), 97-107.
- Stiglitz, J.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Norton & Company Inc.
- Stockdale, S. L., & Brockett, R. G. (2011). Development of the PRO-SDLS: A measure of self-direction in learning based on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61(2), 161-180.
- West, R. F., & Bentley, E. L. (1990).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LISREL modeling, in Long, H. B. et al.(eds.)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157-180).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 논문 접수 2015. 11. 02 / 수정본 접수 2015. 12. 14 / 게재 승인 2015. 12. 22

- 신은경: 경북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호산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무형식학습, 평생교육경영 등임.
- 현영섭: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사회적 계층, 연구방법론 등임.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learners' income and self-directedness for learning

-In the case of Seoul, Daegu, Gyeongsang-do and other regions

Shin, Eun Kyoung(Hosan University)

Hyun, Young Sup(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lf-Directedness for Learning(SDL)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academic field of lifelong education. Until now, the overseas studies about the measurement and social factors of SDL changes are continuously reported. But in Korea, researchers are mainly focused on learning strategies or method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SDL. This research trend in Korea looks like isolating SDL from social contexts. It means that some studies in Korea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rategies or methods and SDL without considering adult learners' social factor such as income, age, sex, etc.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 or effects of SDL researchers need to accept that SDL and adult learners are social facts and take into account some social factors. Based on these viewpoint, we positive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income, sex, age, academic level, the level of participation on lifelong education, and SDL.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932 adult learners in Korea through network survey and paper-and-pencil questionnaire. Utilizing the data, we conducted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rom these analyses, we arrived at the conclusions like the followings. First, income had an affirmative influence on SDL. The more income, the more SDL. Second, sex, academic level,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on lifelong education also had the affirmative influences on SDL. On the bases of these findings, some suggestions were discussed.

* Key words: adult learner, income, self-directedness for learning